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연설

주제 111 (2022)년 8월 10일

전국의 방역 및 보건부문 일군들!
국경과 전역, 해안지대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군부 대지휘관동무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와 비상방역사단, 련대, 대대의 지휘성원동무들!
방역사업에 기여한 지원자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
그리도 간고했던 방역전쟁이 바야흐로 종식되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영토에 악성전염병이 침습한 때로부터는 100여일, 전염병이 전국적범위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저항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시킨 때로부터는 91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전당, 전국, 전민은 강의한 의지와 필사적인 노력으로써 엄혹한 전염병위기를 라개하고 방역체제를 안정회복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과학연구부문이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나라에 조성되었던 악성전염병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최대비상방역체제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괄해보면 악성전염병이 전파되기 시작한 초기 수십만명에 달하였던 하루유역자수가 한달후에는 9만명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7월 29일부터는 악성비루스감염자로 의심되는 유역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는 모두 74명으로서 치명률에 있어서 세계보건계의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될 매우 낮은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감염자발생수는 어제까지 쉰 12일간 경을 기록하였으며 마지막완쾌자가 보고된 때로부터도 7일이 지났습니다.

이로써 우리 령토를 최단기간내에 악성비루스가 없는 청결지역으로 만들는데 대한 우리의 비상방역투쟁의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악성전염병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된것과 방역위기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 됩니다.

우선 마지막감염자들이 모두 완쾌되고 핵산검사에 서도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전염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전사회적으로 방역규정준수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고 소독사업이 더욱 강화되어 악성비루스가 전파될 수 있는 각이한 경로들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가 류입된 경로를 과학적으로 최종확증한데 따라 이에 대한 차단과 봉쇄, 감시가 보다 강화되고 오물들을 발견하는 즉시 수거, 소각, 매몰처리하는 질서와 수입물자들에게 대한 방역학적안전성을 담보하는 사업이 심화되어 외부로부터 그 어떤 변이비루스도 류입되지 못하게 한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악성전염병확진자가 모두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 《BA.2》에 의한 감염자로 판명됨으로써 그 어떤 새로운 변이형이나 아형도 발생하거나 들어 오지 않았다는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제한 사실로 보아 우리 나라에 조성되었던 악성전염병사태가 종식되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이 사상초유의 보건위기를 이겨내고 끝끝내 되찾은 안정과 평온을 기쁘게 확인하는 이 시각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령내에 류입되었던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감미 다시금 되새겨줍니다.
지나온 91일간의 우리의 투쟁영역에서 결코 길지 않은 나날이지만 하루하루가 1년, 10년 맞잡이로 느껴지는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으며 말그대로 준엄한 전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발생초기부터 초특급의 비상방역장벽을 구축하고 완강히 견지하면서 2년나마 평온을 유지해오던 우리 나라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었다는 현실앞에 솔직히 심정은 착잡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기쁨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힘들 때조차 나를 다잡아주고 항상 떠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인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괴과 살점과도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명씩 감염자가 급증하는 눈앞의 위기는 나라의 운명이 이대로 결판나는가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내다보며 최대로 각성하고 결사적으로 분발해야만 하는 매우 다급한 국가최대의 위기사태였습니다.

방역기반과 보건토대가 취약하고 방역경험도 없는 형편에서 국가의 안전과 수천만 인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횡포한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분초가 다급한 시간쟁취전에 서 이에 대한 반응력조차 없었던 국가기관들을 기민하게 움직이고 정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만들자면 어떻게 할것인지, 또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전반사업과 인민생활에 겹쳐든 극난한 시련의 국면을 역전시키자면 과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하는 이 무거운 력사적과제는 우리 당의 령도력을 다 시험한 맹목하게 검증하는 시급성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맞닥뜨린 이러한 극난에서도 우리 당은 자기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자기 본연의 자세와 립장에 충실하였으며 자기 특유의 결단성있고 강력한 정치적지도를 정확히 발휘하면서 국가의 방역기강을 다졌으며 비루스박멸투쟁을 승리로 조지령도하였습니다.

동지들!
당과 인민이 혈연적으로 결합된 굳건한 믿음은 위대한 기적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게 된 엄연한 현실은 우리의 정책이 옳았고 우리의 투쟁방침이 정확하였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당 방역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처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편과 립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활동원칙입니다.

악성전염병이 령내에 류입된 즉시 우리 당과 정부는 최대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는것과 함께 전염병발생상황관리와 전파근원차단, 인민생활안정을 비롯하여 매우 적시적이고 위기를 라개할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바른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을 담보할수 있는 전인민적인 고도의 조직성과 자각적일치성, 의식분발이 없는 완벽한 결과를 기대할수 없었습니다.

결코 쉽게는 정취할수 없었던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당과 정부의 방역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며 일치단결로써 받아들여준 우리 인민들의 수고에 대하여 제일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한 응답한 의무, 본분으로 간주하면서 자각적으로, 량심적으로 준수하고 무조건 실행하는 훌륭한 기풍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공민들이 일신상의 문제와 가정사를 뒤로 미루는것을 혼연히 여기였으며 사소한 동요나 낙약성, 비판과 공포도 없이 방역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특유의 강인성을 더욱 뚜렷이 발휘하였습니다.

이런 인민들을 하루빨리, 한시바삐 악성병마의 위협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과 정부는 국가예비약품을 해제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사업을 최우선 긴급추진함으로써 모든 유역자들에게 필요한 약품이 가닿을 수 있게 하였으며 과학적인 치료진술과 방법을 확립하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우리는 최대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한지 5일째부터는 전국적인 전염병확산세를 억제, 관리가능한 안정적인 국면으로 돌려세우고 비상방역전의 승세를 확고히 틀어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과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주고 국가사업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방역정책과 지침을 능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최대비상방역기간을 돌이켜보면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고 국가적으로 약품보장과 공급대책을 강하게 세운것 그리고 방역사업에서 엄격성에 과학성을 결합하고 주민생활보장대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세운것이 악성비루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대응을 앞당기는데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만이 가지고있는 고도의 조직성과 자각적일치성이 당과 정부의 옳바른 방역정책과 지침을 철저히 집행과 완벽한 결과에 이여지게 하였다는데 있습니다.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심에 있어서나 나라사정에 대한 리해심에 있어서 그리고 공민적의무에 대한 성실성과 곤난을 이겨내는 인내력에 있어서 우리 인민만큼 훌륭한 인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전정복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이 기풍을 부리던 전염병확산사태를 이겨낸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방역안전을 회복하여 전국을 또다시 깨끗한 비루스청결지역으로 만든것은 세계보건사에서 특기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의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방역정책과 이를 집행함에 일치하게 호응해나선 전민합세의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는 또한 우리 사회주의제도특유의 우월성과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어있기때문에 그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국, 전민이 일시에 떨쳐일어나 강력히 대처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국가의 결정을 철대적으로 받들고 일사불란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특유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제도적우월성입니다.

여기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집단주의정신과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위해주는 덕과 정이 전사회적으로 지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제도는 남들이 가질수 없는 불가항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제도적바탕이 있기에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당과 정부의 결정이 시달린 즉시 전국을 시, 군별로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려는 조치가 철저히 실행되었으며 보다 강도높은 방역규율과 질서, 기강이 확립되어 급후방역전에서 전략적주동권을 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총발동되어 외파로 떨어진 초소와 가정등까지 약품을 보장하면서 열병에 걸린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았으며 봉쇄기간 각종 이동봉사대를 내오고 주민들의 생활상불편을 최대한 덜어준것도 우리 제도가 아니고서는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나라 보건제도의 인민적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양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보건계의 물질기술적태도는 미약하지만 이미 확립된 우리 식의 의료봉사체계가 효과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방대한 방역과제, 치료과제가 성과적으로 달성될수 있었습니다.
의사담당구역제와 구급의료봉사체계, 먼거리로 봉사체제와 같은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도 도대하여 유역장약과 전주민검검사업이 매일 진행되고 격리 및 치료가 정확히 실시된것은 전국적범위에서 방역체제의 안정화를 획득하고 감염근원을 없애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
방역전쟁의 승리를 안아오는데서 제일 수고를 많

이 하고 공적을 세운것은 방역부와 보건부문의 일군들입니다.

실사 본연의 임무라 할지라도 위험한 악성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일선참호에 서있는 방역부문의 보건부문 일군들의 부담과 고생이 제일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보건전사들은 당과 국가가 맡겨준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방역전에 서슴없이 온몸을 내내고 누구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으며 자기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환자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무한한 희생정신,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성실성이 우리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이 자기를 지명하고 악성병마와의 싸움에 헌신분투할수 있게 한 정신적힘이었습니다.

최대비상방역기간 전국적으로 주민세대들과 인민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진행하고 유역자들을 찾아내어 완쾌시키는 사업에 매일 보건일군 7만 1,200여명, 위생열성일군 114만 8,000여명이 동원되고 수천명의 보건부문경력자들이 자원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이들모두가 이러한 정신으로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으로 수도에 파견된 인민군대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인민사수의 전방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습니다.

당의 신임과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보답하려는 충성의 열정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총만된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도의 약품공급이 안정되고 전염병형세가 역전되었을뿐 아니라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신뢰와 군민일치의 고귀한 전통이 보외되었습니다.

나는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당중앙의 명령을 훌륭히 관철한데 대해서도 수도 시민들이 우리 군대를 자기 생명의 은인으로, 친혈육으로 진실하게 간주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번 보건위기사태에서 감염자수에 비해 사망자수가 특별히 적은것은 우리 방역, 보건일군들이 한계를 초월하는 노력과 헌신으로 당과 정부의 방역정책, 보건정책을 결사관철하였기때문입니다.

전국의 방역, 보건일군들은 평소의 몇십배에 달하는 과중한 부담속에서도 매일 24시간 방역초소와 치료초소를 떠나지 않고 심신을 깡그리 바치었습니다.

당과 인민에게 충직한 우리의 보건전사들속에는 앓고있는 자기 자식과 남편을 돌보기에 앞서 말은 주민세대들과 환자들에게 정성을 쏟아부은 의사, 간호원들, 자체로 부족되는 의약품을 마련하고 생활필수품까지 준비하여 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의료일군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더욱 감동을 금할수 없는것은 자기의 병세를 잘 알면서도 인간생명의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먼저 생각하고 방역전의 승리와 환자들의 완치를 위해 생의 마지막기력까지 다 바친 방역, 보건일군들의 소행입니다.

이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화선군지들과 간호원들, 천리마시대 붉은 보건전사들과 다름없는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의료인, 애국자들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최대비상방역기간뿐 아니라 비상방역전 시작된 초기부터 전역과 국경, 해안을 비롯한 나라의 방역초소들을 역적으로 지키고있는 전투원들의 헌신과 공로에 대하여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의 투명을 받고 비상방역전의 전초선들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당지도소조 성원들, 봉쇄차단군무에 동원된 수많은 군인들과 안전, 보외일군들, 노동적위군 대원들, 각지 방역초소 성원들이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지켜줬다는 책임감,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폭염과 폭우속에서도 온갖 예로를 인내하며 방역장벽을 철동같이 다지고 전사회적인 방역규율준수기풍을 세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최대비상방역기간에 보건부문 일군들과 방역전초선의 전투원들속에서 발휘된 희생정신은 우리당 투쟁사와 조국청사에 당당히 기록될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최대비상방역기간 우리 인민들속에서 더욱 뜨겁게, 강렬하게 발휘된 공산주의적인 미덕, 미풍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악성병마의 위협에 직면한 준엄한 시각 당과 정부의 제일 큰 근심은 수천만 인민들의 건강과 함께 강도높은 봉쇄차단조치로 어차피 우리 인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중앙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을 그 어떤 최신의과학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응의 비결로 보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우리의 제업가는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을 더 높이 발양한데 대하여 호소하였습니다.

(3면으로 계속)